

기획 분석 : 한국 신경제의 실상

■ 한국의 신경제 현상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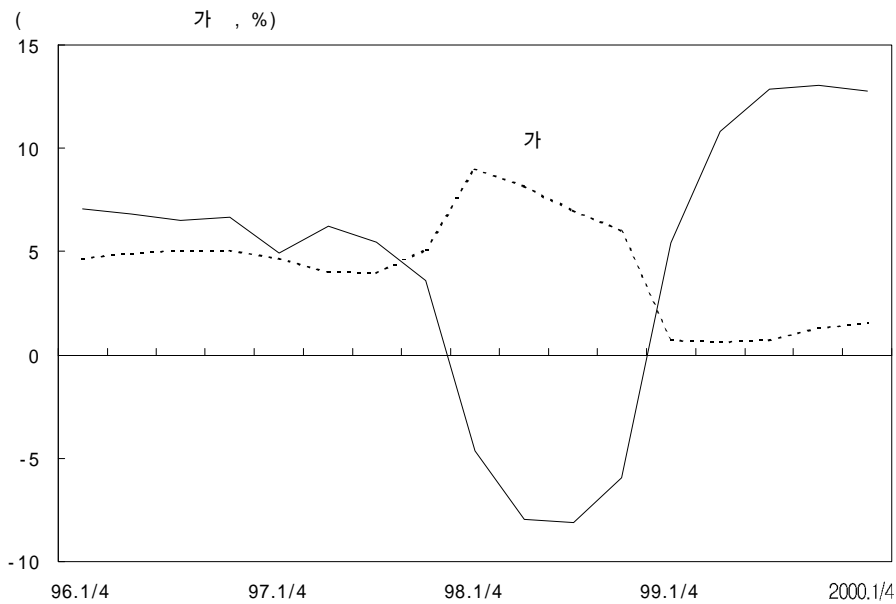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신경제 현상)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임
 - 이에 따라 미국과 같은 신경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음
- (신중한 판단의 필요성) 그러나 고성장, 저물가 현상만으로 신경제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한 판단임
 - 성장과 물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현재의 고성장, 저물가에 영향을 주었느냐에 따라 신경제 판단 여부가 달라질 것임
- (고성장, 저물가의 요인) 현재의 고성장, 저물가 현상의 요인을 정보통신산업의 발달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임
 - 우리 경제가 고성장 단계에 접어든 것은 불과 1년간의 기간에 불과하며, 그나마 99년의 고성장은 98년의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반등 효과에 기인한 것임
 - 저물가의 경우도 환율 안정,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국내 유류 가격 안정, 할인 점 증가 등에 힘입은 바 크며,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아직 어려움
- (신경제 정착 가능성) 미국과 달리 우리 경제는 고성장의 지속으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급증을 견딜 수 없을 것임
 - 신경제에 따른 수요 증가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최근에는 국내총생산의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것이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된 원인임
 - 반면 우리 경제는 고성장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현상이 지속될 경우에 다시 외환 유동성 위기에 빠질 것이 분명함
- (향후 경기 전망) 하반기 이후 경기 하강이 예상되고 있어, 경기 변동 없는 고성장, 저물가 지속이라는 신경제의 개념과도 맞지 않음
 - 경기선행지수가 7개월째 하락하고 있어 경기 하강이 임박함을 알리고 있음
- (과제) 우리나라에 신경제 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의 흑자 기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함
 - 수입 유발형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산업 정책적인 측면에서 부품 및 소재 산업의 육성,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에 힘써야 할 것임

한국의 신경제 현상 진단

□ 신경제 현상 가시화

- (고성장, 저물가)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유례없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최근 우리 경제는 99년 2/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10%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물가는 1% 내외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신경제 현상의 거시경제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고성장, 저물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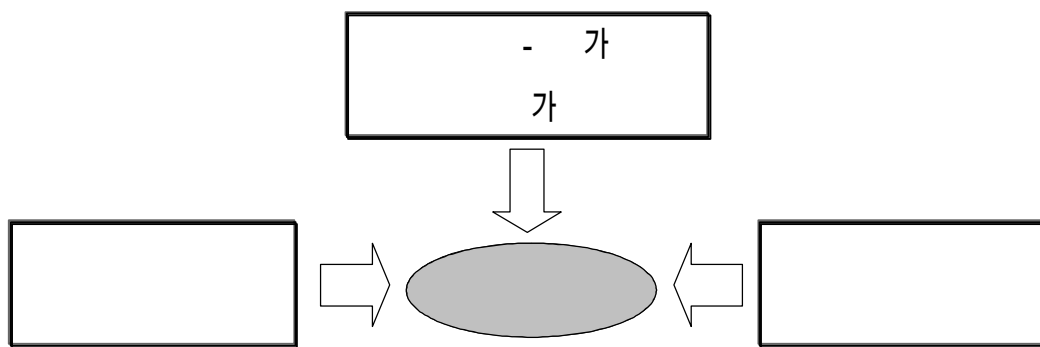
- (신경제 가능성 제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신경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
 -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임금만 안정된다면 정보기술의 발달과 지난 2년간의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총수요 증가가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는 신경제 현상이 최소한 2~3년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 (신경제 판단의 신중성 필요) 그러나 신경제 현상은 단순히 고성장, 저물가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신경제 현상이 우리 경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 당분간 지속될 고성장, 저물가 현상에 힘입어 정부의 거시 경제 정책도 상당한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임
- 또한 신경제에 의한 고성장은 기업의 고수익을 바탕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신경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부실 채권의 감소를 통해 기업 및 금융 구조 조정이 훨씬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그러나,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높은 성장세와 안정된 물가만으로는 신경제라고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어려움이 있음
- 더욱이, 현재의 경제 상황이 신경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하반기 이후 예상되는 경기 하강과 물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 따라서 고성장, 저물가 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평가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신경제 논의의 쟁점

< 우리나라의 신경제 현상 여부 판단 기준 >



- 우리나라의 신경제 현상 여부는 현 거시 경제 상황의 근본 원인, 경제 구조적인 문제, 향후 경기 전망 등으로 나누어서 분석해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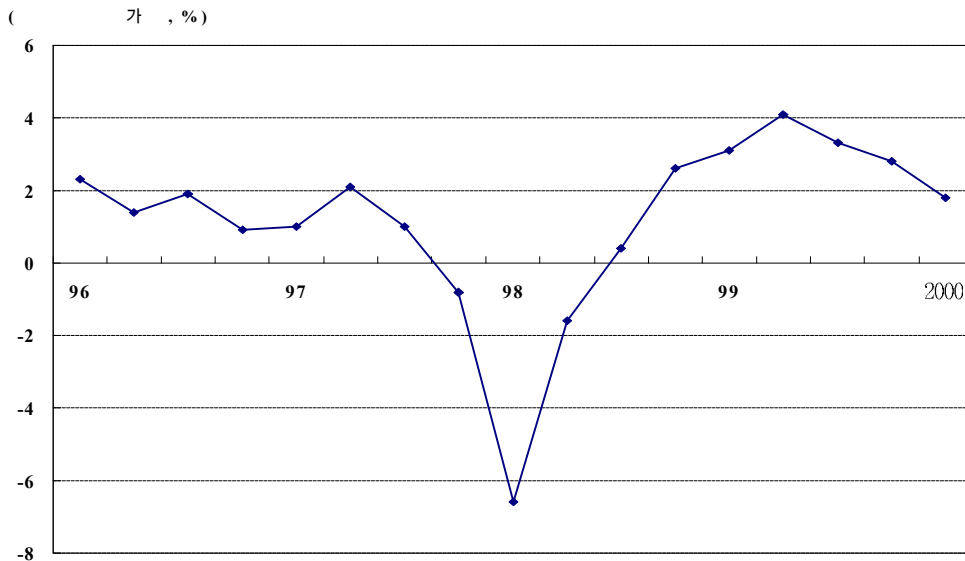
- **(현 상황의 근본 원인 진단)** 현재의 고성장과 저물가가 정보통신 혁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의 결과인가 아니면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함
- **(구조적 문제 평가)** 고성장, 저물가로 대표되는 미국의 신경제 현상이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 구조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가, 즉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고성장이 물가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함
- **(향후 경기 전망 판단)** 신경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경기 하강 없이 최소한 2~3년간은 고성장, 저물가를 유지해야 할 것이므로, 이제 겨우 1년 정도의 고성장, 저물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 경제로서는 하반기 이후의 경제 전망을 통해 신경제 현상의 정착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있음

□ 고성장·저물가의 요인 분석

① 고성장의 요인

- 최근 우리 경제는 4분기 연속 두 자리수의 높은 성장률이 지속되고 있음
 - 2000년 1/4분기 중 우리 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12.8% 성장하여, 99년 2/4분기에 10.8%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4분기 연속 두 자리수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이 4분기 연속 두 자리수의 고성장세가 지속된 것은 80년대 말 3저 호황때 이후 처음 있는 현상임
- 그러나 이와 같은 고성장을 근거로 신경제를 논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음
 - 우리 경제가 고성장 단계에 접어든 것은 99년 2/4분기부터 2000년 1/4분기까지 1년간의 기간에 불과함
 - 또한 위 기간중의 고성장은 98년 1/4~99년 1/4분기까지의 극심한 경기 침체에 따른 상대적 반등 효과가 크게 기여한 것이어서, 현재 우리 경제가 진정한 고성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 특히 계절 조정된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99년 2/4분기를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어, 현재 성장 국면을 고성장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 계절조정 경제성장률 >



- 현재의 성장세가 고성장인가의 여부를 떠나 업종별 성장률을 볼 때, 정보통신업종의 성장세가 여타 산업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은 사실임
 - 2000년 1/4분기중 통신업은 시외전화, 무선호출 등의 부문이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와 같은 이동통신업과 인터넷 등 부가통신의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26.8%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음

< 주요 업종별 성장률 비교 >

	1999					2000
	1/4	2/4	3/4	4/4	연간	1/4
농림어업	9.3	4.7	6.7	2.7	4.7	1.0
광공업	10.5	21.4	27.2	27.0	21.6	22.8
제조업	10.7	21.5	27.3	27.2	21.8	23.0
전기전자	29.8	52.4	51.8	51.9	46.8	49.8
전기가스수도사업	4.5	8.5	8.5	15.4	9.1	18.0
건설업	-14.2	-7.1	-9.5	-10.5	-10.1	-7.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7.1	13.1	16.1	15.9	13.1	12.8
운수창고 및 통신업	13.2	13.2	17.0	20.6	16.1	17.3
통신업	26.7	18.9	27.2	34.2	26.9	26.8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3.1	7.5	5.6	5.5	5.4	6.0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2000년 1/4분기 국내총생산(잠정)」, 2000년 5월 23일

- 그러나 정보통신 산업의 성장이 여타 산업의 생산성이 향상에 기여했다는 증거는 아직 찾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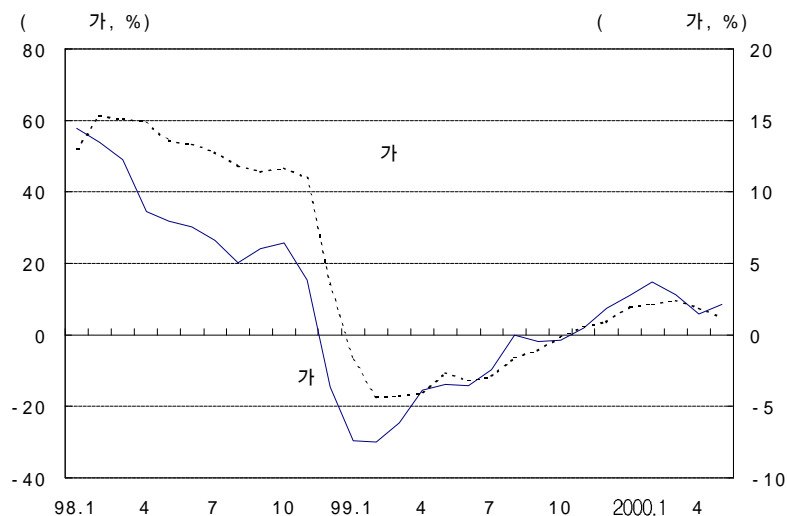
-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에 의한 신경제 현상은 (1) 정보통신 산업의 급격한 성장, (2) 생산성 증대 효과의 파급, (3) 여타 산업의 성장률 증가의 순서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국내에서는 통신업 및 그와 관련된 전기전자산업의 성장률이 여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아직은 생산성 증대 효과의 파급 초기 단계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 것으로 보임

② 저물가의 요인

- 최근 물가는 전년에 이어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2000년 5월중 생산자물가는 전월대비 0.3% 하락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도 1.2% 상승에 그치는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소비자물가도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동월대비 1.1% 상승이라는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이러한 안정세는 전년의 생산자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각각 -2.1%와 0.8%로 안정된 이후 나타난 것이므로 전년의 폭등에 대한 상대적 안정을 보여 주었던 99년과 달리 실질적인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임

< 생산자물가 및 수입물가 추이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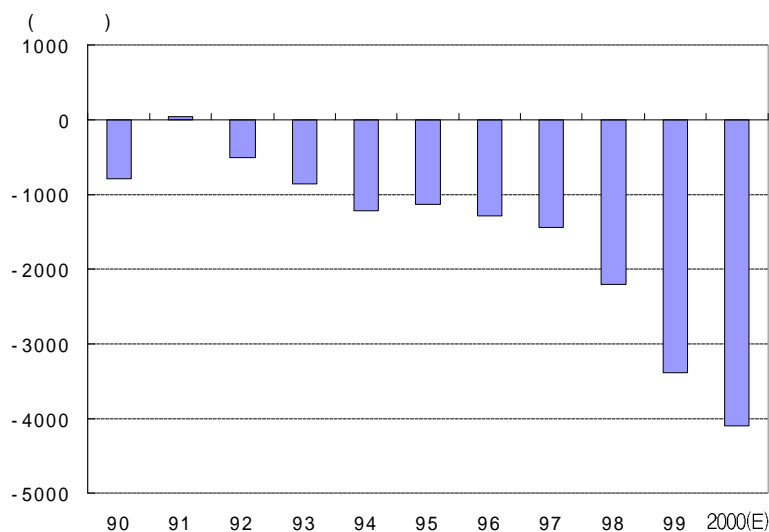


- 그러나 이것을 생산성 향상에 의한 안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최근 물가가 안정된 것은 원화 환율이 안정되면서 수입물가가 크게 안정세를 보인 점도 국내 물가 안정에 기여를 하였으며, 그밖에 할인점 증가 등 이른바 유통 혁명이 물가 안정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됨
 -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는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어 최근 국내 물가 안정이 수입물가의 안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음
 - 또한 원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유류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온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 고성장-저물가 정착 가능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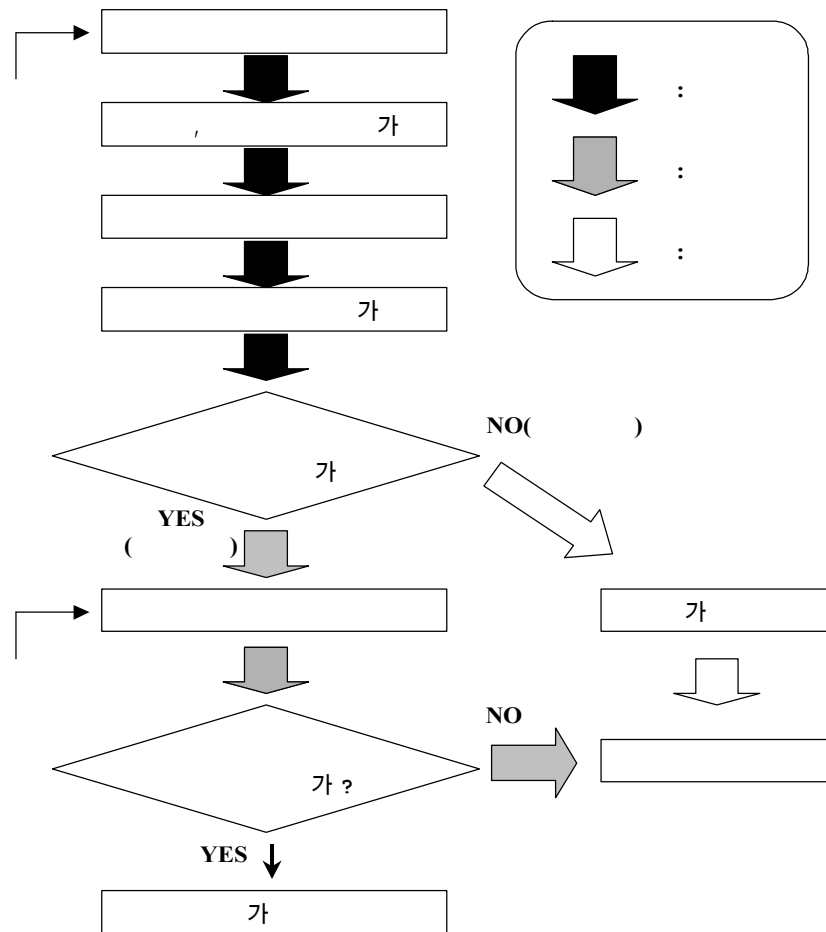
- 미국의 고성장, 저물가의 이면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 미국의 장기 호황 초기였던 1991년의 경상수지는 4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1999년에는 국내총생산의 3,38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이 같은 현상은 국내 수요 증가는 빠르게 나타나는 반면 급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내 공급 증가는 서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함
 - 즉, 국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초과 수요 부분이 輸入 증가를 통해 충족됨으로써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었음

< 미국의 경상수지 추이 >



-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수반한 고성장, 저물가는 불가능함
 - 1996년 중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의 4.4% 수준인 230억 달러로, 이 같은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가 외환위기 발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음
 - 미국은 전세계에 달러화를 공급하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견딜 수 있음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같은 장기간의 경상수지 적자 급증은 그 자체만으로도 외환 유동성 부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대외신인도를 하락시켜 국내 외국 자본의 이탈을 초래하여, 우리 경제를 다시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게 할 것임
 - 즉,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감내할 수 있는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훨씬 작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호황으로 총수요가 증가한다면 이는 반드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것임

< 장기 고성장에 따른 한국과 미국 경제의 반응 차이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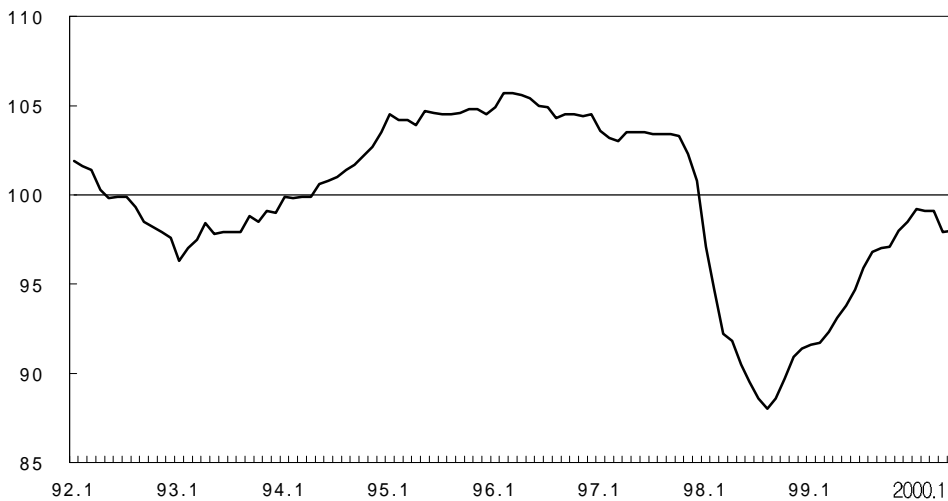


□ 향후 경제 전망에 의한 분석

-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 하강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물가 상승 압박도 커지고 있어 고성장, 저물가 기조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임
 - 산업생산, 도소매판매, 국내기계수주, 국내건설수주 등 대부분의 산업활동 지표들이 둔화되고 있으며, 6~12개월후의 경기를 가늠하게 해주는 경기선행지수도 증가세가 7개월째 둔화되고 있어 경기 하강 국면이 임박했음을 예고하고 있음
 - 원화의 절하 추세 지속, 미국 경제의 둔화 등으로 수출도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경기 주도 부문이 사라지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 경색의 정도에 따라서는 경기 급락의 조짐도 배제할 수 없음
 - 반면 국제 원유가의 강세가 국내 유류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할 경우 국내 물가의 상승 압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저성장-고물가 현상이 우려됨

- 이러한 성장 저하, 물가 상승 우려는 경기 순환상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같은 예상은 98년 하반기 이후의 경기 상승이 생산성 향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환위기 발생 이후의 침체에 대한 상대적 반등의 영향이 컸음에 근거함
 -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00년 1월 이후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등 경기가 둔화 내지는 옆걸음의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음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



□ 종합 판단

-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신경제 현상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나타날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짐
 - 경제 구조상 미국과 같은 장기적 고성장에 따른 초과 수요 압력을 해외 수입으로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임
 - 성장 주도 부문이 정보통신산업이라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나, 아직 이것이 타 산업으로 연쇄적인 효과를 미쳤다는 증거는 부족하며, 저물가의 요인도 외생적인 유류 탄력세율 조정과 환율 안정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우리 경제가 경기 하강기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장기간에 걸친 고성장, 저물가 현상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제 현상과는 맞지 않는 부분임

< 우리나라의 신경제 여부 종합 판단 >

부문	신경제 가능성	주요 판단 요인
구조적 정착 가능성	부정적	· 경상 적자 누증을 통한 국내 초과 수요 해소 불가능
고성장 요인	다소 긍정적	· 정보 통신업 및 전기전자업종의 빠른 성장세
저물가 요인	다소 부정적	· 탄력세율 조정에 의한 국제 유가 상승분 흡수 · 환율 안정 및 할인점 증가
향후 경제 전망	부정적	· 소비 및 투자 둔화 가시화

- 한편 우리나라에 신경제 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의 흑자 기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앞서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와 같은 경제 구조에서는 신경제에 의한 고성장이 지속되더라도 경상수지 적자 누적으로 인한 폐해가 더 커질 것이 분명함
 - 따라서 수입 유발형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산업 정책적인 측면에서 부품 및 소재 산업의 육성에 힘써야 할 것임

■ 전민규 연구위원 mkjun@hri.co.kr ☎3669-4019